

지역 매아리

강추위도 막지 못한 인기

임실 산타축제 3일간 관광객 3만5000여명 몰려

임실군의 첫 겨울축제인 '2017 임실 산타축제'가 강추위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는 가을축제인 '임실치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겨울축제인 산타축제의 주무대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 축제의 랜드마크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산타축제에는 3만5천여명이 찾아, 크리스마스의 낭만과 감동을 선사했다.

추운 겨울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라는 주제로 펼쳐진 '2017 임실 산타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기 위해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진행했다.

산타축제는 군민이 참여하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나눔·문화행사, 먹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돼 한겨울 때서운 추위를 '임실만의 추억'으로 녹였다.

산타축제에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산타축제에는 3만5천여명이 찾아, 크리스마스의 낭만과 감동을 선사했다.

사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임실을 찾는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

첫날인 23일에는 개장식과 함께 영광고등학교 마칭밴드 공연과 산타플레이시엄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전자현악공연, 카페일공연, 미술공연, 뽀에로공연, 산타게임 등의 행사가 잇따라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성탄 이브인 24일은 비가 내리는 낯선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

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가득 메웠다. 행사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진입로에 차가 막힐 정도 많은 인파가 찾았다.

마지막 날에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산타 경연대회! 내가 산타야!'가 열려 전국에서 모인 음악과 댄스 공연 8개 팀이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끼와 예너지를 발산, 관람객들의 재미와 흥겨움을 선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주민이 일궈낸 마을공동체 결실

남원시, 창안대회 결과 발표회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흠어져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마을마다 행복한 에너지를 전파하여 살맛나는 도시로 탈바꿈을 시도 하고 있다.

시는 마을 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꾸는 마을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남원! 우리 마을 공동체 창안대회'를 공모하여 13개 신청 팀 중 최종 7개 팀을 선정하였다.

선정 사업은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을 어린이와 함께 사고파는 '와글와글 해플장터'를 비롯하여 공동육아 공동텃밭 등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관계망을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는 '우리의 상상! 현실



이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일궈낸 공동체의 결실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작은 소망들이 이웃들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과 성취감을 서로 공유하며 마을 간에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남원시는 내년 1월에 설립될 남원시 지역 공동체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의 숨은 일꾼을 발굴하고 역량 있는 마을 활동가를 만들어 내어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남원 만들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은 공사수주 및 자체 구매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로 직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6일 밝혔다.

임실군 건설산업 활성화 기여 공 인정

2년연속 전북도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임실군은 공사수주 및 자체 구매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로 직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그동안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에 노력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건설공사 추진 시 지역에서 실질적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역업체를 적극 배려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 냈다.

임실군은 그동안 공사수주 및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전문업체를 우선 배려해 영세 업체의 입찰 및 시공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자재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야 평가는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현지 평가를 실시해 선정,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심 민 군수는 "올해 기대 이상의 많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무지개빛 웃음, 참여자 모집

임실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무지개빛 웃음' 참여 청소년 40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는 내년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으로 지역 거주 청소년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이다.

또한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을 비롯해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을 받은 방과 후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243일간 운영된다.

주요 활동내용은 특기·적성개발을 위한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율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독서지도, 특별지원활동, 생활지원과정 등으로 운영된다.

'임실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복지, 보호,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에 노력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644-0888)에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경피용 BCG 결핵예방 무료 지원

남원시, 내년 6월 15일까지 연장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결핵 예방을 위해 생후 4주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한시적 실시(지난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중인 경피용 BCG백신 무료 접종기간을 내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국내 공급 예정이었던 덴마크산 파내용 BCG 백신의 제조사 내부 점검 일정으로 인한 공급재개 일정 변경 및 일본산 파내용 BCG 백신의 추가 공급 어려움 때문이다.

임시예방접종 연장 시행을 통하여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유아는 현재와 동일하게 위탁의료기관에서 경피용 BCG 백신으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접종이 지연된 생후 3개월 이후 영아의 경우 결핵피부반응검사(TST)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접종하고 있어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BCG 접종을 완료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유영철 기자

농림축산 살림 1500억원 확보

남원시,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만들기 청신호

남원시가 2018년도 농림축산분야 예산 1,515억(일반회계 총액의 25.52%) 확보해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사람 찾는 농촌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시는 역점사업으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영농여건 개선,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농정 분야 816억원, 원예 허브분야 146억원, 축산분야 186억원, 산림소득분야 153억원, 농업기술분야 95억원, 기타 119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농업인 복지분야 13개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영세농 농작업비, 농업인월급제 확대 시행, 농작물재해보험료율(80% →

85%) 올리고,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농업인 상생플랫폼도 건립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정책에도 20억 5,000만원을 투자해 1,200명 유치한다.

체재형 가족실업농장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거문제를 해소한다. 귀농귀촌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된 귀농귀촌정책은 2017년 말 현재까지 5,100여명이 정착해 농촌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13개 지구 14개 사업에 총 192억원을 확보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도 착수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은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중심기능 활성화 하는 사업이다. 쌀산업 분야에서는 273억원을 들여 고품질쌀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30개 사업을 진행한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에는 총 352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저수지정비(5개 지구) 농로확포장(76km), 용·배수로 현대화사업(104km)을 진행한다.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2023년 완료 목표로 22개지구 432ha를 추진한다.

축산분야는 축사시설 시설현대화, 가축방역, 조사료생산, 친환경농업 등에 186억원, 산림분야에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촌개발, 숲 가꾸기 등 153억원, 농업기술분야에는 훈향제감자, 추어산업, 신기술접목 사업에 95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환주 시장은 "농업인 복지증진과 소득보전을 연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을 통한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